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다.’

#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 ▣ 일시 : 2024. 3. 22.(금) 14:00
- ▣ 장소 : 여주시립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 1층
- ▣ 주최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  
여주시의회 진명숙 의원
- ▣ 주관 : (사)여수여해재단








# contents

## 1. 발 제

- ▶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여수(麗水) 5**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순신학과 이민웅 교수

## 2. 지정토론

- ▶ **이순신의 도시, 여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언 23**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 ▶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여수 33**  
국사편찬위원회 조미선 사료조사위원
- 



---

#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여수(麗水)

---

대구가톨릭대학교 이 민 웅



#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여수(麗水)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민웅

## 목 차

1. 머리말
2. 임진왜란 이전의 전라좌수영
3. 임진왜란 초기 해전과 전라좌수영
4. 강화교섭기 이후의 전라좌수영
5. 맺음말

## 1. 머리말

이때 적들이 누차 호남(湖南)을 엿보면서 으르렁거리기를 그치지 않고 있었다. 공(公)은 국가의 군량이 모두 호남에 의지하고 있으니 “만일 호남이 없어진다면 이는 국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sup>

유명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란 문구는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이 남긴 「충민사기(忠愍祠記)」에 등장한다. 알려진 대로 이 문구는 이항복이 선조의 명을 받아 전라 좌수영, 여수(麗水)에 내려와서 충민사를 건립한 후에 지은 「충민사기」에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충민사를 건립하게 된 경위, 이순신의 조상과 출생, 전라 좌수사가 되기까지의 관력(官歷), 임진왜란 첫해의 주요 해전 경과(經過) 뒤에, 그리고 1593년(癸巳)의 한산도 행영(行營) 이진 관련 내용 앞에 기록되어 있다.<sup>2)</sup>

그런데 이 문구는 사실 1592년(壬辰) 한 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이래 임진왜란이 끝나는 1598년(戊戌)까지 호남, 그중에도 전라 좌수사 휘하의 5관 5포는 조선 수군 전력의 핵심이었다. 정유재란 시기에 불행히도 일본군에 점령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조선 수군의 재건과 마지막 노량해전에는 또다시 호남 백성의 지원이 결정적인 배경이었다.

본고는 전라좌수영, 여수를 중심으로 임진왜란 각 시기의 좌수영 상황과 그

1) 『이충무공전서』 권9, 「충민사기(忠愍祠記)」

2) 『이충무공전서』 권13, 「소대년고(昭代年考)」에도 같은 언급이 있는데, 서술된 순서도 임진년과 계사년 사이로 비슷하다.

역할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이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언급했던 이유와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임진왜란 이전의 전라좌수영

1580년(선조 13) 7월에 이순신은 전라좌도에 속한 발포만호(鉢浦萬戶; 종4품)로 임명되었다. 그 이전까지 8~9품 직책에 있다가 처음으로 종4품 만호로 승진한 것이었다. 종4품은 문·무반 모두에게 의미 있는 품계다. 문신 4품 이상은 품계 명칭이 ○○대부(大夫)가 되고, 무신은 ○○장군(將軍)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무과급제 후 4년 만인 36세에 만호가 된 것은 비교적 빠른 승진이었다.

그가 만호로 재직한 발포(鉢浦)<sup>3)</sup>는 전라남도 고흥반도의 남단(南端; 남쪽 끝)에 있고, 주변에 내·외 나로도(內·外羅老島) 등 많은 섬이 산재해 있다. 물론 동구비보(童仇非堡) 권관도 소규모 부대의 지휘관이지만, 발포만호가 되면서 명실상부한 첫 야전 지휘관이 된 것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이충무공전서』 권수(卷首)의 「연표」에는 부임 6개월만인 1581년(선조 14) 1월에 파직되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같은 책 권9의 「행록」에는 1582년(선조 15)에 파직된 것으로 되어 있다. 검토 결과 「연표」 작성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은 이로부터 10년 후에 발포만호의 직속상관인 전라 좌수사가 된다. 전라 좌수사 휘하의 5관 5포 중 한 곳인 발포만호 재직 경험은 그가 전라 좌수사 역할을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함경도 두만강 하구의 조산만호(造山萬戶)로 복무한 지 1년여가 되던 1587년 가을에 이순신은 부근의 녹둔도 둔전관(屯田官)<sup>4)</sup>을 겸하게 되었다. 이 녹둔도 둔전은 정언신(鄭彦信)이 관찰사였던 1583년에 처음 시작하였다. 녹둔도가 넓고 비옥했기 때문에 둔전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 있던 주변의 여진족에게는 좋은 약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 추수 때가 되면 약탈이 자행되곤 하였다.

3) 발포(鉢浦)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968번지 일대로 현재 복원된 만호성(萬戶城)이 잘 남아있다.

4) 둔전관(屯田官) : 둔전은 군인이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경작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고, 이를 관장하는 관리가 둔전관이다.

둔전관을 겸하게 된 이순신은 이 섬이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직속 상관인 북병사 이일(李鎰)<sup>5)</sup>에게 병력 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일은 이 요청을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추수 때가 되자 걱정했던 대로 여진족이 침입하였다. 노략질하고 도주하는 여진족을 이운룡(李雲龍) 등과 함께 추격해서 포로가 된 군사 60여 명을 되찾고, 적의 간부급 몇을 사살(射殺)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이순신도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았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전투였지만, 결과는 ‘패전(敗戰)’이었다.

북병사(北兵使) 이일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순신을 패장으로 몰아 처벌하려고 신문(訊問)을 하려 했다. 패전 책임에 대한 진술서를 받으려는 이일과 그 패전 책임이 여러 차례 병력 증원 요청을 묵살한 병사에게도 있다는 이순신의 주장이 맞았다. 이순신은 수차 병력 증원을 요청했던 공문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 일은 국왕 선조에게까지 알려졌다. 선조 임금은 이 전투가 단순한 패전이 아니므로 이순신에게 ‘백의종군(白衣從軍)<sup>6)</sup>’의 명을 내린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실제로 이순신은 이듬해인 1588년 1월에 북병사 이일 등이 감행한 시전부락(時錢部落) 전투에 급제(及第) 신분으로 우화열장(右火烈將)을 맡아 공을 세우고 복직되었다. 이순신은 이상과 같이 부친상을 전후해서 북녘 최전방에서 여진족과의 실전(實戰) 경험을 갖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임진왜란 불과 5년여 전이었다.

한편, 전라좌도 수군과 관련해서 1587년(선조 20)의 왜구 침범 사건이 주목된다. 이해 2월에 왜선(倭船) 18척이 전라도 흥양(興陽) 지역에 침입하였다. 이때 전라좌도 수군은 왜구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녹도 권관(權管; 종9품) 이대원(李大源)이 전사(戰死)하고 말았다.<sup>7)</sup> 당시 왜구는 흥양을 거쳐 가리포(加里浦; 전남 완도)를 침략해서 병선(兵船) 4척을 빼앗는 등 소란을 이어갔다. 이에 조정에서는 김명원(金命元)을 전라도 순찰사로 삼아 변란을 진압하였다. 이들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왜구가 노략질을 마치고 도주한 뒤였다.<sup>8)</sup>

5) 이일(李鎰) : 1538~1601. 자는 중경(重卿), 본관은 용인(龍仁)이다. 1558년(명종 13)에 무과 급제, 1583년에 전라 좌수사를 지냈다. 이후 니탕개(泥湯介)의 변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1587년에 북병사가 되었다. 1592년 경상도 순변사가 되었으나 상주서 패하고, 충주, 한성, 임진강, 평양으로 계속 후퇴하였다. 이후 평안북도 병마절도사, 함경도 북병사, 양호 순변사, 북병사, 남병사 등을 역임하다가 1601년 살인죄에 연루되어 한성으로 압송되다가 정평(定平)에서 64세로 별세하였다.

6) 백의종군(白衣從軍) : 원래의 계급, 직책이 강등되어 일개 병졸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직책만 정지될 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휘관을 보좌하거나 직접 전투에 나서, 공을 세우면 복직될 수 있게 만든 조선시대 고유의 무장 처벌 방법이었다.

7)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2월 26일(乙酉)

이 사건 이후 일련의 상황들은 전라좌도 수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변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라 좌수사 심암(沈巖)이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녹도 권관 이대원을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구원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처형(處刑)을 당했다. 이후 조정에서는 홀로 분전하다 전사한 이대원을 위해 사당을 만들고 추숭(追崇)하는 한편, 윤두수(尹斗壽)를 감사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새로 부임한 전라 좌수사 이천(李薦)은 얼마 후에 예하 수군의 훈련을 위해 휘하 제장(諸將)을 소집하였다. 이때 부하 장수 중에 기일에 늦은 자가 여럿 있었다. 이에 이천은 순천부사 성응길(成應吉)과 보성(寶城)·낙안(樂安)·흥양(興陽)·광양(光陽) 등의 지방관을 장벌(杖罰) 했다. 이 과정에서 보성군수 이흘(李屹)이 곤장을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신임 전라 좌수사 이천이 휘하 장수의 기강을 잡기 위해 과도한 형벌을 가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왜변(倭變) 이후 변경의 군기(軍紀)와 결부된 것이었다. 요컨대 전라좌도 수군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4년 후에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다.

요컨대 1587년에 발생한 북로남왜(北虜南倭)의 두 사건은 이순신과 전라좌도 수군이 모두 실전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전라좌도 수군이 다른 곳보다 전력(戰力)과 군기(軍紀)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순신은 1591년(선조 24) 2월에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다. 그는 부임 이후 임진왜란 이전까지 14개월 동안 전라좌도 수군을 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준비하였다. 이순신은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 답은 『난중일기』 등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그가 준비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쟁을 대비해서 그는 병력의 총원 문제, 판옥선과 거북선[龜船] 건조, 총통(銃筒) 등 화기(火器)와 무기(武器) 준비, 그리고 군사 훈련 등을 착실히 준비하였다. 여수의 좌수영을 중심으로 예하 5관 5포<sup>9)</sup>가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1년 이상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중에도 병력 총원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고 준비한 부분이었다. 『

8) 『선조수정실록』 권21, 선조 20년 2월 1일(庚申)

9) 5관(官) 5포(浦) : 전라 좌수사 예하에 소속된 5개 군현(郡縣)과 5개 군진(軍鎭)을 이른다. 5관은 순천부, 광양현, 흥양현, 보성군, 낙안군이고, 5포는 방담첨사, 사도첨사, 여도·발포·녹도 만호이다. (지도 참조)

난중일기』 첫 달 초3일 기록부터 병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순신은 정병(正兵) 상·하번 병력을 2개월 간격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들 정병 외에 중간 달의 월초에는 별방군(別防軍)이 소집되었다. 즉, 정병과 별방군의 상·하번 군사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확인 외에도 수시로 병력을 점검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sup>10)</sup>

16세기 이후 조선의 국방태세가 해이해지면서, 군역(軍役)을 회피하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였다. 당시 군역(병력) 상황을 보면, 군적(軍籍)에는 일정 수효가 기록되고 있으나, 실제 군역을 수행하는 병력은 극소수였다. 이순신은 좌수영을 중심으로 휘하의 5관 5포에 대해 모든 병력을 원칙대로 징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휘하의 병력 상황을 철저히 감독했다.

다음으로 그는 주력함인 판옥선을 추가로 건조하고, 새로 거북선[龜船]을 만들었다. 판옥선은 16세기 중반 왜변(倭變)이 일어났을 때, 왜선이 중국 배의 영향을 받아 커지자, 기존의 맹선(猛船)을 대체하면서 새로 건조하기 시작한 대형 군선이었다. 전라좌도 수군이 첫 번째 출전 때에 동원한 판옥선[전선(戰船)]은 모두 24척이었다. 이것은 좌수영, 본영이 4척이고 그 외에 5관 5포가 각각 2척씩 거느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모는 조선 후기에 수군의 규정으로 굳어진 듯하다.

판옥선 건조 및 정비와 별도로 이순신은 거북선[龜船]을 창제하였다. 거북선은 판옥선과 같은 선형(船形)인데, 판옥선이 16세기 중반에 나온 군선이기에 전 시기의 거북선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거북선은 알려진 대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주력선인 판옥선과 함께 조선 수군의 해전 완승을 이끈 함선(艦船)이었다. 같은 시기의 『난중일기』에는 거북선이 완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sup>11)</sup>

한편, 이순신은 1592년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좌수사 휘하 여러 군진의 전비태세를 직접 순시(巡視)하였다. 이때의 주요 점검 대상은 전선(戰船), 병력(兵力), 각종 화기를 포함한 무기(武器), 성곽(城廓)과 해자(垓子) 등이었다. 난중일기에는 그 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sup>12)</sup>

순시는 전라 좌수사 휘하의 5개 군진(軍鎭)이 대상이었다. 전쟁을 불과 2개월 앞두고 행한 순시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전선(戰船)이었다. 첫 번째

10) 『난중일기』 1592년 1월~4월 중 병력 관련 기사

11) 『난중일기』 1592년 2월~4월 일기 중에 있다.

12) 『난중일기』 1592년 2월 19일부터 27일의 일기.

여도부터 마지막 방답까지 전선은 대체로 새로 만들어졌거나 완비된 것을 보고, 만족감을 표했다.

다음은 화포를 발사한 것인데 녹도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듯하다. 그리고 각 진에서 장전(長箭)과 편전(片箭) 등 각종 무기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 부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휘하 5포에 대해 전비태세 전반을 점검하면서 전쟁 준비 여부를 확인해 본 것이었다.

네 번째인 군사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이순신은 부하 장수들과 1592년 1월 14일 첫 번째 활쏘기를 한 이래, 2월 이후에는 수시로 활을 쏘았다.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활쏘기”이다. 이순신은 화기를 만들고 연습하는 동시에, 기존의 활쏘기[궁술(弓術)] 연습을 자신부터 행동으로 강조한 것이었다. 날씨가 추운 1월과 2월에도 틈만 나면 사정(射亭; 활터 정자)에 올라 군관들과 활쏘기를 했으니, 실제 사부들은 더 많은 시간을 훈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이순신은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즉 전략 전술(戰略戰術)<sup>13)</sup>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었다. 그중에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서울에 올라갔던 진무(鎭撫)가 해 질 무렵에 들어왔다. 좌의정(左議政) 류성룡이 편지와 『증손전수방략(增損戰守方略)』이란 책을 보내왔다. 그것을 본즉, 해전과 육전, 불로 공격하는 전술 등에 관한 것을 낱낱이 말했는데, 참으로 만고에 뛰어난 저술이다.<sup>14)</sup>

이순신은 임진왜란 시기에든 침수 차례에 걸쳐 류성룡과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당시 좌의정 류성룡은 이순신에게 개인적인 서신과 함께 최신 전법서(戰法書)라고 할 수 있는 『증손전수방략』이라는 책을 구해서 보낸 것이었다.

요컨대 이순신은 1591년 2월 전라 좌수사로 여수(麗水)에 부임한 이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철저한 준비는 1592년 임진왜란 첫해의 모든 해전

13) 전략전술(戰略戰術) : 사실 전략(戰略: Strategy)과 전술(戰術: Tactics) 두 용어를 합한 것이다. 전략은 전쟁 전체를 이끌 방책으로 큰 개념(그림)이고, 전술은 구체적인 전쟁(전투) 방법으로 작은 개념이다. 둘을 합해서 전쟁에 대비하는 전쟁 계획과 전쟁(투) 계획을 합해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4) 『난중일기』 1592년 3월 5일.

에서 전승(全勝)을 거둘 수 있는 주요한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다.

### 3. 임진왜란 초기 해전과 전라좌수영

1592년 임진왜란 첫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거둔 전승(全勝)은 세계 해전사(海戰史)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실이다. 모두 4회에 걸친 출전이 있었고, 해전은 10회 또는 15회가 벌어졌다.<sup>15)</sup> 첫해 해전을 승전으로 이끈 인물은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었다. 그리고 전라좌수영 여수는 그의 본영(本營)이었다. 앞서 살펴본 임진왜란 이전의 전쟁 준비는 물론이고, 실제 출전(出戰)도 여수 본영이 그 중심이 되었다.

제1차 출전을 위해 5월 1일 좌수사 휘하의 5관 5포 전력이 본영 앞바다에 모였다.<sup>16)</sup> 첫 출전이 5월 4일 새벽에 시작되었으니, 3일 전에 휘하 전력이 좌수영 본영에 집결한 것이었다. 7일의 옥포해전과 합포해전, 8일의 적진포해전을 마친 후, 전라좌도 수군은 9일에 제1차 출전을 마무리하며 다시 본영으로 되돌아왔다. 본영으로 돌아온 전라좌도 수군은 진을 파하고 다시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이때 이순신은 전선을 한층 더 정비해서 사변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sup>17)</sup>

제2차 출전 때 본영인 좌수영에 집결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5월 29일 새벽에 출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면 적어도 2~3일 전에 여수 좌수영에 집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1차 출전 때보다 전선 척수가 23척으로 줄었고, 우후 이몽구(李夢龜)가 출전하는 대신 전만호 윤사공(尹思恭)을 유진장(留鎭將)으로, 조방장(助防將) 정걸(丁傑)은 흥양현에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조치했다.<sup>18)</sup> 이전 연구에서는 1차 출전과 2차 출전의 전선 척수 변경을 1척이 장계를 올려보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24척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유진장에게 전선 2척을 남겨두고 출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추론일 듯하다. 그리고 그동안 돛을 만들고 화포를 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거북선[龜船]이 최초로 출전하게 되었다.

원래는 6월 3일에 전라우도 수군과 합세해서 통합함대를 형성한 뒤 출전할

15) 10회는 1592년 9월 1일(음력)의 부산포해전을 하나의 해전으로 합해 본 것이고, 15회는 8월 29일의 장림포해전, 9월 1일의 화준구미, 다대포, 서평포, 절영도, 부산포 해전을 각각의 해전으로 셈한 결과이다.

16) 『난중일기』 1592년 5월 1일.

17) 『임진장초』 1592년 5월 10일, 「옥포파왜병장」

18) 『임진장초』 1592년 6월 14일, 「당포파왜병장」

계획이었지만, 경상 우수사 원균의 급한 요청에 따라 5월 말일(29일)에 다시 단독 출전을 감행한 것이었다. 첫날 사천(泗川)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6월 2일 당포(唐浦)에서도 쾌승을 거두었다. 6월 4일에는 전라우도 수군이 합류하여 최초의 통합함대를 형성한 뒤, 5일에 당항포해전과 7일에 울포해전에서 승리하였다. 모두 4회의 해전에서 72척의 적선을 분멸(焚滅)하는 성과를 거두며 남해의 제해권 장악을 시작했다. 2차 출전은 6월 10일에 미조항(彌助項) 앞바다에서 통합함대를 해체하고 각각의 본영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되었다.<sup>19)</sup>

제3차 출전은 이전과 달리 적의 중앙 수군<sup>20)</sup>을 상대한 것과 더불어, 출전 2일 전에 전라우도 함대가 여수 본영에 도착해서 통합함대를 이루고 손발을 맞춘 후에 출전한 것이 큰 특색이다.<sup>21)</sup> 출전 2일 후인 7월 8일 벌어진 한산대첩은 그동안 전라좌도 수군이 준비한 해전 전술이 큰 효과를 거둔 날이었다. 몇 척의 전선으로 적함대를 넓은 바라도 유인한 뒤, 횡렬진으로 적 함대를 포위하고 당파전술로 적 함대 73척 중 59척을 분멸한 한산대첩은 남해의 제해권을 조선 수군이 장악하는 결정적인 해전이였다. 이틀 뒤 벌어진 안골포해전에서도 쾌승을 거둔 조선 통합함대는 11일과 12일에 주변 해안을 수색한 뒤 13일에 3차 출전을 마치고 여수 본영으로 귀환하였다.

제3차 출전을 마친 후 각자의 영으로 귀환했던 전라도 수군은 제4차 출전을 위해 8월 1일에 다시 좌수영(여수)에 합류한다. 1차와 2차 출전은 전라좌도 단독 출전으로 시작했고, 3차는 2일 전에 합류하여 출전했다면, 제4차 출전은 24일 동안 좌수영에 합류해서 결진하고 약속을 거듭 명확히 하면서 출전을 준비한 것이다.<sup>22)</sup>

그런데 제4차 출전 때는 전라 좌·우도 수군의 전력이 50여 척에서 74척으로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졌다.<sup>23)</sup> 이미 3차 출전 때 경상우도 수군이 수리한 전선 7척을 이끌고 합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제4차 출전 당시는 3도 통합함대의 전력 규모가 전선 85척 내외 규모로 증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력의 증강은 전라우도의 경우 기존의 전선을 정비하고 병력을 징발한 것으로, 전라 좌도는 전선의 추가 건조와 병력 징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각각

19) 앞 주와 같음.

20) 중앙 수군을 달리 표현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의 직속 수군이라 할 수 있다.

21) 『임진장초』 1592년 7월 15일, 「견내량파왜병장」

22) 『임진장초』 1592년 9월 17일, 「부산포파왜병장」

23) 앞 주와 같음.

추정해 볼 수 있다. 전라좌도의 전력 증강은 여수 본영을 중심으로 휘하 5관 5포에서 나누어 진행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력 증강은 제4차 출전의 목표가 일본 수군의 근거지인 부산포를 공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 전력으로는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대 규모의 통합함대를 구성한 조선 수군은 8월 24일 출전했지만, 해전을 회피하는 일본 수군의 전술 변화 때문에 8월 말일인 29일이 되어서야 첫 번째 장림포해전을 맞게 된다.

이어 9월 1일에 출전한 조선 수군은 아침에 외해의 파도와 바람에 고생했지만, 화준구미, 다대포, 서평포, 절영도 앞바다에서 30여 척을 분멸하였다. 조선 수군은 오후 늦게 부산포에 도착했는데, 그대로 물러날 경우 적이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다는 판단에 공격을 감행했다. 결과는 정박되어 있던 적 함선 100여 척 분멸로 이순신이 언급한 대로 가장 규모가 컸고 적의 병참선을 위협하는 의미 있는 승리로 끝났다. 대승을 거둔 조선 수군은 9월 2일에 다시 각기 본영으로 귀환했다.<sup>24)</sup>

1592년 첫해에 조선 수군이 거둔 해전의 전과는 눈부셨다. 4회의 출전과 10회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적선 320여 척을 격파하였다.<sup>25)</sup> 아군 전선 손실은 전무(全無)한 상황에서 세계 해전사상에서도 유례가 없는 완벽한 승리였던 것이다. 이러한 승리는 좌수영(여수)을 중심으로 5관 5포 전력을 합한 전라좌도 수군이 주축이 되었음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런 압도적인 승리는 선조(宣祖)와 조정의 조선 수군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간섭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곧 1593년 연초에 거듭된 수군에 대한 출정 명령으로 이어졌다. 1593년(癸巳) 1월 8일,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했다. 그 과정에서 명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며 일본군과 대적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선조 임금은 명군이 곧 일본군을 몰아내고, 일본군은 쫓겨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1593년 연초부터 선조 임금은 전라 좌수사 이순신에게 일본군이 철수할 것에 대비 명군과 합세하여 해상에서 퇴로를 끊고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계속 하달한다.

선조와 조정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 이순신은 1593년 2월 초6일 좌수영(여수 본영)을 출발하여 8일 밤에 온천도(溫川島; 칠천도(漆川島))에 도착했다.<sup>26)</sup>

24) 앞 주와 같음.

25)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p.106의 표 참조.

도착 이후 2월 10일, 12일, 18일, 20일, 22일, 3월 6일 등 모두 6차례에 걸친 웅천 공략 작전을 펼쳤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도 “급히 적의 돌아갈 길목으로 달려가서 도망하는 적을 끊고 몰살하라.”라는 유지(有旨; 임금의 명령서)가 내려왔다.<sup>27)</sup> 사실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은 평양성 전투 승리가 최초이자 마지막 승리였다. 한성 입구, 벽제관(碧蹄館) 부근에서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전의를 상실한 그는 개성으로 평양으로 거듭 물러났다. 일본군의 한성 철수는 본국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 내린 후인 4월 18일에 단행되었다. 따라서 선조의 조선 수군 출전 명령은 있지도 않은 적의 후퇴를 기정사실로 상정한 잘못된 명령이었던 것이다.

이순신과 전라좌도 수군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 1593년 2월 6일부터 4월 초까지 거의 두 달간 웅천지역 공략 작전을 펼쳤던 것이었다. 결국 그해 농사를 위해 급히 좌수영(여수)으로 귀환해서 번갈아 가며 농사를 짓고, 전력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해산하였다.<sup>28)</sup>

#### 4. 강화교섭기 이후의 전라좌수영

강화교섭기란 1593년 4월 이후 명군과 일본군 사이에 강화교섭이 시작된 때부터 1597년 1월 정유재란(丁酉再亂) 시기 일본군의 재출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임진왜란 전 기간이 7년 8개월이었는데, 초기 전쟁 1년과 정유재란 1년 4개월을 제외하면 거의 4년여가 강화교섭 기간이 된다. 이 긴 시간 동안 조선 수군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앞에 언급한 1593년 연초, 2개월간의 출전은 조선 수군에게 적잖은 타격이 되었다. 1592년 겨울부터 시작된 이상 저온 현상과 농시(農時)를 놓침으로 인해 농작에 실패하면서 군량은 물론 백성의 식량 사정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명군이나 일본군도 마찬가지였다. 명군은 원거리 출정군으로서 자신의 영토 밖에서 적을 저지한다는 1차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큰 욕심, 즉 일본군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거기에 기후와 말먹이 변화로 인한 마역(馬疫; 말 전염병)으로 1만

26) 『난중일기』 1593년 2월 6일, 8일.

27) 『난중일기』 1593년 3월 17일

28) 『임진장초』 1593년 4월 6일 「토적장(討賊狀)」

두 이상의 전마(戰馬)가 손실되면서 사실상 전투에 임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일본은 이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다. 선봉군의 대부분은 따뜻한 규슈와 시코쿠 출신이었는데, 조선의 함경도와 평안도 한겨울 추위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다. 또한 식량 사정도 점차 나빠져서 조명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평양에 이어 한성을 포기하고 남부지방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결국 강화교섭은 3국 모두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었다.

강화교섭기 첫째 조선 수군은 전염병의 치성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조직 면에서의 진보와 전력 건설을 위한 4가지 노력을 계속하였다.

먼저 조직 면에서의 진보는 전쟁 중에 수군 전체를 통솔하기 위한 삼도수군통제사 직책을 신설한 것이다. 1592년 첫째 해전에서 전승을 거두었지만, 이때는 경상도와 전라도 수군절도사 3명이 합의를 해 가면서 이끈 승리였다. 효율적인 작전을 위해 전체 수군을 통솔할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정은 1593년 9월에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를 유지하면서 전라, 충청, 경상 3도의 수군통제사를 겸하도록 임명하였다.<sup>29)</sup> 초대 삼도수군통제사로 이순신이 임명되고, 좌수영 여수는 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本營)이 되었다. 지금까지 전라 우수영과 경상 우수영과 동급의 지휘관이 주둔하는 전라 좌수영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삼도수군통제사가 주둔하는 통제사 본영이 된 것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때부터 좌수영은 조선 수군의 해군본부, 혹은 작전사령부가 된 것이었다.

한편, 이상 기후와 열악한 식량 사정은 1595년 가을이 돼서야 어느 정도 풀렸다. 그 이전 시기 가장 참혹한 상황은 1594년 봄이었는데, 『난중일기』에 의하면 하루에도 2백여 명씩이나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최대 21,500명까지 이르렀던 최대 병력도 1595년 봄에는 4,100여 명 수준으로 격감하였다.<sup>30)</sup> 한 마디로 수군의 존립 자체도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전라도 관찰사가 된 이정암(李廷菡)은 전라우도 수군의 조직을 14관 11포에서 5관 11포로 축소하면서, 수군 소속의 9개 지방관을 육군 소속으로 옮기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순신은 새로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지만, 밖으로는 일본군과 대적해야 하고 안으로는 수군 속입의 전력을 육군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2중, 3중의 괴로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사 이순신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한

29) 『이충무공전서』 권수, 「교서(敎書)」 “삼도통제사에 임명하는 교서(授三道統制使 敎書)”

30) 이민웅, 앞의 책, pp. 133~143. 참조.

산도(閑山島) 진영에 머무르면서 견내량(見乃梁)을 막아 일본 수군의 해상 진출을 막아 호남을 지킨다는 전략을 견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비록 상황은 열악하지만, 조선 수군의 전력 건설을 위한 4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sup>31)</sup>

첫 번째로 통제사 이순신은 강화교섭기 동안 전선(戰船) 250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전라좌도 60척, 우도 90척, 경상우도 40척, 충청도 60척 등 250척의 전선을 준비하면 언제 어디서든 일본 수군과 맞붙어 싸울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통제사 이순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관찰사 이정암의 앞 조처와 충청도의 비협조로 인해 200여 척을 건조하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마무리된 듯하다.

두 번째로는 병력 충원을 위해 시종일관 고군분투한 것이다. 전선 1척에 120~130명이 승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척의 전선에는 2만 6천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1595년 봄에 4,100명, 가을에 5,400명뿐이었다. 수군 속읍에서도 육군이 징발을 계속했고, 수군 소속 지방 9곳을 육군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병력 현실은 통제사 이순신이 각 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사에서 교체될 때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통제사 이순신은 병력 확보를 위해 유리민(流離民; 떠돌이 백성)을 안집(安集) 한다든지, 각 지역 모병 책임자를 독촉한다든지, 의승병을 모집한다든지, 선조와 동궁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긴 수군의 친족에 대한 징발을 전쟁 중에는 계속하도록 거듭 주장하는 등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세 번째는 군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그는 전쟁 중에 많은 시간을 한산도 진영에 출진해 있었다. 때문에 본영에서는 종사관(從事官) 정경달(丁景達)이 병력 충원과 군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군량 확보를 위해서는 유희지를 활용한 둔전(屯田)을 경영한다거나, 소금을 굽고 고기를 잡아 곡식과 바꾸는 어염(漁鹽)의 이(利)를 취하기도 하고, 각 지역의 계원유사(繼援有司; 모곡 책임자)를 정해 의곡(義穀)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량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둔전은 서애 류성룡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 속에도 있었고, 또 임진왜란 5년 전에 녹둔도 둔전관을 겸하면서 얻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여러 난제를 해결하며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1596년 가을, 체찰사 이원익(李

31) 앞 주와 같음. pp. 144~163. 참조.(이하 관련된 내용은 인용 생략)

元翼)과 함께 둔전 지역 시찰할 때, “체찰사가 자못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식으로 그 효과가 좋았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어염의 이를 취한 것도 군량 확보에 큰 힘이 되었다. 전쟁 중에 긴요한 필수품이기도 한 소금은 바닷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좋은 자원이었다. 소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해서 군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화기 준비와 군사 훈련이다. 그의 『임진장초』에는 조정에 유황을 내려보내달라는 장계 2편이 남아있다. 염초는 자체 생산했지만, 화약을 만드는데 중요한 유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에 요청한 것이었다. 또한 철과 구리를 얻기 위해 의승(義僧)에게 시주를 받아오도록 하기도 했고, 이렇게 거둔 동철(銅鐵)로 각종 화기를 제작했다. 원군과 통제사를 교대할 때 새로 만든 배에 싣고도 남은 화기가 있을 정도였으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군사 훈련은 달리 설명한 내용은 없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날 때마다 활쏘기 연습을 충실하게 했다. 이순신은 거의 매일 사정(射亭)에 올라 군사들과 함께 활쏘기를 연습했는데,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유재란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삼도수군통제사를 이순신에서 원군으로 교체하는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1597년 7월 16일 펼쳐진 칠천량해전에서 강화교섭기 동안 전력을 기울여 만들었던 조선 수군은 10여 척을 제외하고 전멸당하는 궤멸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리고 이후 좌수영(좌수)도 일본군의 점령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후 좌수영을 잃은 조선 수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통제사가 머무는 진(陣)을 진도 벽파진에서 우수영과 발음도, 그리고 고하도와 고금도로 계속 옮겨가며 주둔할 수밖에 없었다.

## 5. 맺음말

1597년 8월 3일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은 즉시 호남 지역을 돌며 조선 수군의 재건을 시작했다. 한 달여 전력을 모은 이순신은 조선 수군을 이끌고 진도(珍島) 벽파진(碧波津)으로 진(陣)을 옮겼다.<sup>32)</sup> 9월 16일, 명량

32) 『난중일기』 1597년 8월 29일. (晴 朝渡碧波津結陣)

해전에서 승리한 후에는 월동 장소를 찾다가 목포 앞바다의 고하도(高下島)로 진을 옮겨 주둔했다.<sup>33)</sup> 또한 1598년 2월 17일에는 다시 고금도(古今島)로 진(陣)을 옮겨 조선 수군 전력을 다지며 마지막 노량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삼도수군통제사가 머무는 진영이 통제사영(統制使營)이고, 이를 줄인 말이 통영(統營)이다. 오늘날의 통영시는 알려진 바와 같이 1604년에 7대 통제사 이경준(李慶濬)이 고성(固城) 두룡포(頭龍浦)에 새로 건설한 통제사영이 그 출발이었다. 그리고 그 후 1607년에 삼도수군통제사가 본직이 되고 경상 우수사가 겸직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통제영이 되었다. 삼도수군통제영은 1895년에 조선 수군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오늘날까지 통영이란 지명(地名)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시기 삼도수군통제사가 창설될 때는 전라 좌수사를 본직으로 하고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도록 했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좌수영(여수)이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사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통영의 한산도가 최초의 통제영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제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의견이 분분하다.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 진영은 전라 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행영(行營; 나가서 주둔하던 임시 진영)이었다. 단지, 1593년 9월 12일자 삼도수군통제사 임명 교지<sup>34)</sup>를 10월 1일에 한산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한산도가 최초의 통제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35)</sup> 이로 인해 때 아닌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 어디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미 임원빈은 논고를 통해 “한산도는 임시로 설치한 진(陣)이고, 여수는 처음부터 영(營) 또는 본영(本營)으로 구분했다.”라고 명확하게 정리한 바 있다.<sup>36)</sup> 이 견해에 필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진경문(陳景文)의 『섬호집(剡湖集)』 하지하(下之下)의 ‘통제진(統制陣)’이라는 항목을 통한 정리 내용-한산도를 비롯해 벽파진, 고하도, 고금도 등의 경우 ‘통제사진(統制使陣)’이라는 용어로 구분한 예가 있음-도 이상의 논쟁을 정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sup>37)</sup>

33) 같은 책 1597년 10월 29일.(晴 四更初吹 發船向木浦 ... 移泊于寶花島 ... 欲爲留陣造家之計)

34)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교서(敎書)』 2015, pp. 63~65. 참조.

35) 『이충무공전서』 권3, 「수군에 소속된 고을은 육군에 배정하지 말도록 청하는 계본」(請舟師所屬邑勿定陸軍狀); 계본 첫머리에 10월 1일 교서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36) 임원빈, 「전략·전술의 관점에서 본 이순신의 위기관리」 『이순신 연구논총』 39(2023년 가을·겨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p.41.

37) 이수경, 「임진왜란 시기 통제영 검토」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들 창립 제13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집』,

필자는 각 지역이 서로 “최초”라는 단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 마치 지역이나 식당 간에 맛집 원조가 서로 자기네라고 다투는 것과 같은 느낌마저 드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아래 첨언(添言)을 통해 이론의 여지를 없애는 용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충무공 이순신은 초대 삼도수군통제사였다. 또 그의 모든 기록에서 여수 좌수영을 본영(本營)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초대 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本營), 여수(麗水)”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표현이 좀 더 역사적 실상에 가깝고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용어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

# 전라좌수영 및 삼도수군통제영, 여수 정책 토론회

---

여수시의회 진 명 속 의원



# 전라좌수영 및 삼도수군통제영 , 여수 정책토론회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 I

### 개요

- 전라좌수영은 조선 수군의 주진으로 남해안 방어의 중심이며, 조선 최고사령부 역할을 수행하며 임란 극복의 본거지 역할을 하였음.
- 충무공 이순신은 1591년 전라좌수사로 부임했고, 1593년 충청, 전라, 경상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였습니다. 1601년 거제도 경상 우수영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전라좌수영은 8년 동안 삼도수군 통제영이었음.
- 전라좌수영과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우리 여수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과 지역 선조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한 구국의 성지이자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발원지임.
- 구국의 성지이며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유적인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복원할 필요성이 있음.
- 더 나아가 임진년 당시 국란 극복의 근거지이자 승리의 도시, 이순신의 도시가 우리고장 여수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순신 역사자원의 발굴·보전 및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 통제영이란

- 일반적으로 통제사가 주둔하는 영을 통제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제영이란 삼도수군통제영의 준말로써 삼도의 수군을 통제하는 통제사 본영의 주된 업무를 조직적으로 관할하는 수영으로 정상적으로 국가행정력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선소를 포함한 일정한 규모의 충분한 지상 수군기지를 일컫는 말이다.

## □ 통제영에 대한 연구

- 발췌 및 관련근거 :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에 관한 연구』

저자 정현창

- 통제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인 시기는 1606년(선조39)이었다. 임란 당시의 제 기록을 통하여 당시에는 통제영이라는 용어는 없었으며 통제영이라는 용어 대신에 본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임란 무렵에는 본영이라고 부른 장소가 통제영이었다. 본영 외의 장소를 말할 경우에는 행영, 진, 해진, 해영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본영이 바로 통제영이었다는 말이며 오로지 전라좌수영만을 본영이라고 불렀으니 전라좌수영이야말로 참된 통제영이다. 여수는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

## □ 삼도수군통제영, 여수

### ○ 발췌 및 관련근거 :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에 관한 연구』

저자 정현창

○ 한산도가 통제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그에 대한 반론을 들어 여수가 삼도수군통제영임을 주장한다.

○ 한산도가 삼도수군통제영임을 주장하는 근거 :

1. 삼도수군통제사 주둔
2. 독자적 관아 시설
3. 독자적 병력과 군량

○ 반론

1. 주둔이란 임무수행을 위해 한 지역에 머무름을 의미하며, 전라 좌수사 겸 통제사인 이순신이 한산도에 있으므로 한산도는 전라 좌수영임을 일컫는 장은 없으며, 한산도가 전라좌수영이 아니듯 한산도는 삼도수군 통제영도 아닌 해상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전진기지 일 뿐이다.
2. 육지에 군진이 장기간 주둔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축물 등 중요 시설이 세워져야 한다. 이에 걸맞는 관아의 설립이 조건이 된다면 이시언 통제사가 통제영사를 건설하였다는 호좌수영지의 기록을 근거로 통제영 건물이 있는 전라좌수영이 통제영이 되어야 할 것임.
3. 임신장초 계사년 ‘본영으로 돌아가는 일을 아뢰는 계본’ 중에 “군졸 중에 특히 오래되고 병든 자들은 교대하여 데리고 우선 본도로 돌아갔다가 단속하고 진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라는

장계 내용에 장기간의 해상 활동 정황, 타도의 한산도가 아닌 본도의 본영에서 주된 업무를 보았던 당시의 제반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한 면에서 한산도는 자체적으로 무기나 전선의 제조 등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물자의 수령이나 일시 보관 비축하는 병참 저장지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처럼 근거들을 분석하여 한산도는 통제영이라고 칭할만한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었음을 밝혔다. 삼도수군통제영이 삼도의 수군을 통제하는 본영의 주된 업무를 조직적으로 관할하는 수영으로 정상적으로 국가행정력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선소를 포함한 일정한 규모의 충분한 지상 수군기지일 진데 주된 업무를 조직적으로 관할하는 국가행정력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인 삼도수군통제영은 전라좌수영지인 여수 본영이었다.

### Ⅲ

##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복원 추진

-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 복원은 여수의 역사와 정체성을 곧게 세우는 역사적 과업임.
- 문화재관련 교수·여해재단 등 전문가 및 기관과 협력하여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 할 것.

### Ⅲ

## 이순신 역사자원의 발굴 보전 및 활용 제언

### □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표지석 세우기 적극 동참

- 여수는 조선 최초 수군최고사령부이나, 지역에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석 및 안내문 등 방안이 마련되어있지않은 실정임.
- 민간에서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표지석 세우기 운동을 진행중임. 여수시 또한 적극 동참하여 지역의 위상을 높여 줄 것.

### □ 이순신 상징 기념 건축물 건립 제언

- 임진왜란 당시 최초 승리와 함께 4차 출동까지 16전 전승을 이룩한 이순신 함대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 건축물을 건립하여 여수의 위상을 높일 것.

## 이순신의 도시, 여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언

제234회 임시회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5분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도시, ‘여수’ 를 온전하고 제대로 알려 그 위상과 뜻을 기리고  
도시 이미지를 높여 후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은 토요토미 정권이 무방비 상태의 조선을 무참히 짓밟은  
형언하기 어려운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조선을 구한 장수가  
충무공 이순신이었고, 그분이 근무한 곳이 우리 고장 여수이며 전라좌수영이었  
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4월 13일 부산 침공부터 한양이 점령되는 5월 3일까지  
조선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치닫는 왜군을 막지 못했고, 연전연패하여 결국 수도  
한양을 일본에 허무하게 내 주고 말았습니다.

위란의 상황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우리 고장 선조들인 전라좌수영 백성들은  
일치단결해 5월 4일 경상도 앞바다로 첫 출전하여, 옥포에서 첫 승전고를 울렸고  
이후 2차, 3차, 4차 출동까지 총 16차례 출전해 전승을 거두는 위업을 달성  
했습니다.

그 모든 승리를 준비하고 기획한 곳이 우리 고장 여수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 하에 군수물자를 대고, 모병하고, 활쏘기와 함포 사격을 연습하는 등 전투를  
준비했던 곳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히 스쳐지나가는, 지금은 국보 제304호

진남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라좌수영이었습니다.

임진년 당시 국란 극복의 근거지이자 전쟁 승리의 도시가 이순신의 도시가 우리 고장입니다. 여수시는 이런 역사적 의미를 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런 뜻깊은 곳, 승리를 기념하고 기록한 곳이 고소대의 대첩비각입니다. 비각 안의 대첩비 명칭은 정확히 ‘통제이공수군대첩비’ 입니다.

그런데 그 비각과 대첩비는 지금의 고소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당시 동령현, 지금의 충무동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헐리고 외부에 반출되었다가 우리 고장 선조들이 다시 찾아와 고소대 즉, 일제강점기에 신사 터가 있던 곳으로 옮겨 세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대첩비 최초 위치를 여수시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수시는 그 터에 대한 고증을 거쳐 이충무공 대첩비를 처음 세웠던 곳이란 팻말이라도 정확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각이 일제강점기에 헐리고 반출된 사연도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손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 승리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건축물을 여수시는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임란 최초 승리와 함께, 임진년 4차 출동까지 16전 전승을 이룩한 여수의 이순신 함대에 대한 자랑스러운 승리의 업적을 세세토록 기리는 기념물이 여수에 꼭 들어서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민간에서는 여수가 최초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초삼도수군통제영 표지석 세우기 운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수시도 최초삼도수군통제영 표지석 세우기에 적극 동참해 지역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북선에 관련된 일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거북선을 만들어 전쟁에 대비했던 곳이 바로 여수입니다. 거북선을 최초 건조했고, 거북선으로 전쟁에 승리한 고장이 바로 여수였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선소테마공원 조성을 시작했는데 ‘선소테마 공원’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거북선을 만든 고장인 만큼 이곳에 거북선이란 명칭이 추가로 들어가도록 개명하는 작업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선만큼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여수만의 유일한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여수에서만 건조되었기에 여수에 특화된 ‘거북선’ 콘텐츠를 여수시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수는 거북선의 도시이자 이순신의 도시라는 점을 시정부와 의원 여러분께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거북선과 이순신을 활용한 문화정책과 관광정책들이 지금보다 더 폭넓게 풍부하게 펼쳐지고 구현되어 호국, 충절의 도시 여수가 전 국민, 전 세계에 기억되는 미향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여수」에 대한 토론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조미선



#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여수」에 대한 토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조미선

평소 존경하는 이민웅 교수님을 모시고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의통제영”이라는 사실을 굳히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에 초대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여수(麗水)」에 대한 명쾌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논고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시기와 임진왜란 초기 해전 시기, 그리고 강화 교섭기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전라좌수영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논고에 공감하며 몇가지 제 의견으로 토론을 같음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 “여수” 였다 라는 주지의 사실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학술적 뒷받침을 마련하며, 범시민운동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여수에 이순신재단 설립을 위해 세미나와 시민공청회 등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고 오늘 정책토론회 또한 그 연계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다.

## - 아 래 -

1. 2022년 4월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 제477주년 기념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위원회 주최로 개최.
2. 동년 10월에 여수시의회 주최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와 재단 여수유치를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3. 2023년 7월 사단법인 종교회 및 범시민연대 주최로 「전라좌수영 겸 최초삼도수군통제영 국가문화재 사적지정 건의」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4. 동년 8월 「전라남도 이순신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사단법인 여수여해재단 주관으로 개최.

일련의 행사들은 여수가 이순신 생애 가장 빛나는 8년의 주무대였고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지켜낸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되살려 여수를 “구국의 성지”로 만들자는 운동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타 시에서 그것을 선점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고 바로 잡자는 일련의 시민 운동이다.

논고에서는 한산도 진영을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행영(行營)”이라 하고, 행영은(나가서 주둔하던 임시 진영)이라고 하였다. 사전적으로 행영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行營 :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
2. 行營 : 진영을 돌아다니며 실제의 사정을 살핌.
3. 行營 : 고려 시대에, 병마사가 주둔하던 영문(營門).<sup>38)</sup>
4. 行營 : 나라에 난리가 있을 때 출정하는 군대가 주둔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군영.<sup>39)</sup>
5. 行營 : 조선 시대에, 육진(六鎭)에 속한 이십구 진보 가운데 하나. 세종 때 둔 북방의 주요 방어로, 종성진 동쪽 75리에 위치한다.<sup>40)</sup>

---

38) 표준국어대사전

39) 한국고전용어사전

40) 우리말샘

고려시대 안찰사는 상주하는 관청이 없이 도를 순회하며 통치하면서 변방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병마사를 파견하여 군사업무를 총괄하였다. 조선초기에도 감영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고 관찰사가 순회하였다. 이때 병마사, 관찰사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속(僚屬)과 함께 거처할 공간이 있어야 했기에 행영이 설치되고 운영되었다. 조선에서는 관찰사와 관련된 행영 이외에도 변방의 방어, 중앙의 군사지휘 등과 관련된 행영이 있었고, 군영과 관련된 행영은 조선후기까지 운영되었다.

한산도가 최초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전라좌수사가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하였으나 전라좌수영에는 통제영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았고 한산도에서는 건축물이 있었다는 이유를 든다. 행영의 구분으로 본다면 한산도는 위 4.의 군영과 관련된 행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 안찰사 제도를 계승한 조선의 행영은 한산도에 행영으로서의 거처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요속과 거처공간 때문에 최초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연구되지 않는 역사 왜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늘 논고에서 “초대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이라는 표현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이 분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용어를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초대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보다는 “초대삼도수군통제영”으로 제안합니다.

논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어떤 식당이 “최초”라고 하니 그 옆의 식당은 “원조”라 하고, 그 옆에서는 또 “원조의 원조”라고 하면서 끝없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

이런 현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수가 “초대 삼도수군통제영”으로 명명되기를 제안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